

朝鮮 刻本 《花影集》에 대하여

박 재 연*

차 례

- | | |
|---------------------|------------|
| 1. 머리말 | 5. <心堅金石傳> |
| 2. 《花影集》의 조선 전래와 尹溪 | 6. <劉方三義傳> |
| 3. 《花影集》 발문과 崔岾 | 7. 맺는 말 |
| 4. 《花影集》의 내용 | |

1. 머리말

1996년 2월 長春에 갔다가 王汝梅 교수로부터 명대 전기 문언소설집 《花影集》 교점본을 받아들고 이 책이 조선에서 판각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종래에 개별적으로 소설사전류에 이 소설에 대한 해제가 간혹 실렸지만 朝鮮刻本임을 명시하지 않거나¹⁾ 明代 寫刻本으로만 기재하는²⁾ 등 조선에서 판각

* 鮮文大學校 中國學科 副教授

1) “明代文言傳奇小說集。四卷二十篇。陶輔作於弘治初年，初刻於嘉靖初年，今存萬曆丙戌崔岾重刊本。寫刻，無圖。”(黃霖 主編, 《中國歷代小說辭典》 제2권, 雲南人民出版社, 1993. p.522.)

2) “日本早稻田大學存明代寫刻本。”(中國古代小說百科全書,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3. p.179) “國內已無傳本。日本早稻田大學圖書館藏明寫刻本一種。……”(寧稼雨 撰, 《中國文言小說總目提要》, 齊魯書社, 1996. p.230.)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아마도 짧은 발문의 내용을 제대로 관독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조선 문인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95년 11월 吉林大學出版社에서 회귀본 소설총서의 하나로 《花影集》이 출판됨으로써 程毅中에 의해 명대 조선 간본으로 바로잡혔다.³⁾ 이 책의 원전은 현재 중국에는 남아 있지 않고 일본 와세다 대학 특별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데 유일본이다.

《花影集》에 대한 국내 기록은 1585년(宣祖 18) 木板本 《攷事撮要》 <昆陽>조에 처음 보인다.⁴⁾

十日半程 昆陽

三十一息十七里, 別號昆明、昆南、鐵城、昆山, 冊板大全小學、救急簡易方、大字孝經、赤壁賦、花影集.⁵⁾

이보다 앞서 나온 《剪燈新話》 《剪燈餘話》 《嬌紅記》 《效顰集》 등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 등을 통해서 조선 전기에 전래되었고⁶⁾ 일부는 印出되었음이 널리 알려졌다.⁷⁾ 최립의 발문의 전문을 옮겨 본다.

전 오륙년 간 과거 동기인 君會와 내가 군수였을 때 서해의 풍토가 나쁘고 백성들의 송사가 빈번하여 그곳에 머물러 즐겁지 못했고 일에 시달려 책을 벗삼아 즐길 겨를이 없어 서로 이를 고통스러워 했다. 이제 형이 영남 昆陽의 군수로 있으면서 내게 새로 판각한 소설 《花影集》을 보내왔으

3) 此書國內未見傳本, 只有日本早稻田大學圖書館藏有一部朝鮮刻本, 崑後有萬曆丙戌(1586)朝鮮人崔崑的跋。([明] 陶輔 撰 程毅中 校點, 《花影集》 [明] 鈞鶴湖客 撰 徐野 校點, 《鶴渚志餘雲窓談異》 합본, 吉林大學出版社, 1995.11. p.2.)

4) 《攷事撮要》에 《花影集》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류탁일 교수께서 처음 펴자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5) 《攷事撮要》, 韓國圖書館學硏究會, 南文閣, 1974.8.

6) 柳鏗一 교수의 논문, <15·6世紀 中國小說의 韓國傳入과 受容>(《고소설연구1》, 태학사, 1997. pp.209~246.)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7) 《韓國冊板總目錄》(鄭亨愚·尹炳泰 編,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79.)에 따르면, 北漢山城, 保寧, 密陽, 永川, 陝川, 居昌, 全州, 順天, 龍安, 濟州, 原州 등 三南 일대에서 골고루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攷事撮要》(韓國圖書館學硏究會, 南文閣, 1974.8.)에 보면 임란 전 《剪燈餘話》와 《效顰集》이 淳昌에서 방각본으로 판각된 기록이 단 한번 보이는데, 그 중 《效顰集》은 朝鮮 刻本이 일본 蓬左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나 미처 열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필시 이 책은 세상의 勸戒에 관한 것으로 의미를 밝혀 취할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의 각본은 전에 있던 곳에서 하지 못하고 곤양에서 이루어졌으니, 곤양에 있음에 즐겁고 일이 적어 책을 벗삼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내가 또다시 成都로 떠났다가 지금은 서울 일로 바쁘니 책을 대만지며 저도 모르게 부러움을 금할 길 없다. 형의 종조부 尹溪가 嘉靖 丙午年에 중국에 사신 갔다가 이 책을 구득하였다 한다. 군회의 이름은 景禔로 군과 주의 수령을 두루 역임하여 명망이 드높았다. 萬曆 丙戌 초봄 동진 최립은 쓰다.

前五六年間，君會年兄與余俱爲郡守，西海風土惡而民訟繁，使人居之不樂，疲於事爲，未暇以書爲嬉，蓋相與病之。今兄守嶺南之昆陽，寄余以新刻小說曰《花影集》者，余未及閱覽，而必其書闕世戒乎，發人意思乎，有取焉耳。然兄之刻此不于前而于昆，昆之居可樂，少事爲，足以書爲嬉者可想矣。余又適去成都，而碌碌於京師，不覺撫卷而嗟羨也。兄之同姓從祖父斯文溪於嘉靖丙午奉使中朝，購得此集云。君會名景禔，前後爲郡及州，有治聲。時萬曆丙戌首春通川崔崧之識。

위 발문에 의하면 尹景禔의 종조부 尹溪가 嘉靖 丙午(1546, 명종 1)년에 중국에 사신 갔다가 이 책을 구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40년 뒤에 윤경희가 영남의 昆陽(지금의 경남 泗川) 군수로 있으면서 관각한 것을 황해도에서 함께 군수로 재임했던 지우인 崔崧⁸⁾에게 보였고, 이에 최립이 萬曆 丙戌(1586, 선조19) 초봄에 친필로 발문을 쓴 것을 받아 寫刻하여 뒤에 덧붙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585년(선조 18)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진 《攷事撮要》⁹⁾ 이미 “花影集” 책판 목록이 실려 있어 1585년에 이미 《화영집》 4권 20

8) 최립과 윤경희는 각별한 사이였던 듯하다.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실제로 1581년 崔崧은 載嶺郡守로, 尹景禔는 信川郡守로 飢民을 구제하는 데 힘써 表裏를 하사 받은 적이 있으며 발문 말미에 윤경희가 군과 주의 수령을 차례로 역임하여 명망이 드높았다는 말을 이를 가리키는 듯하다.

9) 《攷事撮要》는 1554년(명종 9)에 魚叔權이 편찬한 類書. 조선시대의 사대교린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일반상식 따위를 뽑아 엮은 것이다. 어숙권의 原撰에서부터 1771년(영조 47) 徐命膺이 《攷事新書》로 대폭 개정, 증보하기까지 무려 12차례 걸쳐 간행되었다. 초간본은 현재 전하는 것이 없고 1568년(선조 1)에 발간된 乙亥字本이 최고본이다. “花影集” 책판 목록은 許籟이 續修하여 宣祖 18년(1585)에 간행된 판본에 실려 있다. 이 간본은 原撰 당시부터 선조 18년까지 사이에 조사된 八道冊板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점에서 다른 어떠한 간본보다도 그 이용가치가 높어 평가되고 있다.

편에 대한 관각이 다 끝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쇄랍의 발문은 그 뒤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발문에 成都란 지명은 평안도에 있는 “成川都護府”를 지칭한다.¹⁰⁾ 실제로 쇄랍은 1582년 成川府使에 부임한 적이 있다.

2. 《花影集》의 조선 전래와 尹溪

司馬榜目에 따르면 尹溪는 자가 浩甫, 본관은 玄風, 부친은 輔殷이며 1511년(中宗 6, 辛未) 別試 乙科에 합격하였고 成均館典籍, 禮曹正郎 安邊府使, 僉知 등을 역임하였다. 그에 대한 기록은 1511년(중종 6) 10월 26일(癸卯) 稀蹄守 李瑚의 혼사 문제와 처리와 관련하여 처음 기록이 보인다.¹¹⁾ 처음에 회제수가 嫡女는 진사 강은에게, 서너는 윤계에게 시집보내기로 혼약을 정하였는데, 윤계가 과거에 급제하자 회제수의 첩사위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적녀를 나에게 시집보내면 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자 회제수가 부득이 적녀를 그에게 시집보내고, 도리어 서너를 강은에게 시집보내려 하니 강은이 저절하였다. 회제수가 강압하자 강은이 헌부에 呈訴하여 끝내 회제수의 사위가 되지 않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그는 평생 곤욕을 치루게 된다. 7년 뒤인 1518(중종 13) 8월 2일(己巳)에 이 일로 司憲府에서 탄핵당하였고,¹²⁾ 같은 해 12월에 典籍이 비록 낮은 벼슬이기는 하지만 師表의 직임이므로 부적합하다 하여 陟職당하여¹³⁾ 戶曹正郎으로 옮긴 이듬해인 1519년(중종 14) 9

10) 東至黃海道谷山郡界一百二里, 至江東縣界四十二里, 西至殷山縣界四十六里, 北至陽德縣界六十五里, 距京都七百二十四里。(《新增東國輿地勝覽》제54권 168면)

11) 稀蹄守李瑚, 嫡妾俱有女, 妾[?] + 隱]讓嫡女, 尹溪讓庶女, 皆以納采, 後尹溪登第, 以嫡女歸之, 欲以庶女, 妻隱. 隱家請勿與爲婚. 宗簿寺啓, 還姜濼納采以罪瑚, 從之。(《中宗實錄》卷14, 14집 539면)

12) 중종 13년 8월 2일. 憲府又啓曰: “稀蹄守有嫡女子妾女子, 以妾女子, 將嫁今戶曹正郎尹溪, 而嫡女子, 則許歸于進士妾[?] + 隱], 及尹溪登第, 即以嫡女, 移嫁尹溪, 而溪亦甘心爲嫡婿, 請皆罷黜. ……” 傳曰: “稀蹄守尹溪等, 不可逃罷, 當推訊而罪之.”) 《中宗實錄》卷34, 15집 468면)

13) 臺諫啓前事, 諫院啓曰: “尹溪前之所失, 有關人倫, 典籍雖卑官, 師表之任也. 請遞之. 尹溪事依允.”) 《中宗實錄》卷35, 15집 496면)

월에 또다시 혼인의 예를 잃어 일이 진실로 올바르지 못하니, 육조의 낭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니 체직하라는 간언이 있었으나 임금은 윤택하지 않았다.¹⁴⁾ 1525년(중종 20) 6월 승문원 제조가 새 급제자 중에서 이문과 한어에 밝은 자를 선발하여 아뢰면서 이문에 밝은 사람의 하나로 윤계가 거론되고 있었다.¹⁵⁾ 얼마 후 그는 외직인 황해도 豊川府使로 나갔다. 1525년(중종 20) 윤계는 豊川府使로 있던 중 거상중에 서울 집에 있으며 향시 平筮를 쓰고 음주에 棋博을 일삼아 또다시 체직되었다.¹⁶⁾ 여기서 끝나지 않고 헌부는 及第 윤계가 거상할 때 근신하지 않은 사실을 승복하지 않는 것을 들어 의금부로 이관할 것을 청하였고,¹⁷⁾ 중종은 그를 의금부에 가두어 추국하고 그 아내와 이혼하게 하였다. 의금부 죄인이 된 윤계는 당시 자신의 소회를 상소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미 판결이 난 뒤였다.¹⁸⁾

14) 중종 14년 9월 18일. “戶曹正郎尹溪已失姻之禮，事固不正，不可爲六曹郎官。……不允。”(《中宗實錄》卷36, 15집 569면)

15) 중종 20년 6월 4일. “承文院提調啓曰：‘吏文、漢語崔世珍趙翊外，未聞有名之人，此必不勤爲學，其中可爲人，必加勸懲事，已有傳教，其成効者少，揀擇練習十餘年，而其中稍成才者，漢語尹漑、沈遂源金沔，吏文李光、尹溪、姜顯、蔡世英、趙琛而已。以此相代赴京可也，但李光，已陞堂上，然已成就，故書啓耳。久業而不用意講習者推論事，亦有上教，然教勸如一，而無成効，亦如一，難以抄啓。故新及第可當人，別抄以啓。’傳曰：‘知道。’”(《中宗實錄》卷54, 16집 424면)

16) 중종 20년 9월 5일. “豊川府使尹溪，守喪，時在京家，常着平筮，日事飲博，以有識文臣，所爲如此，非徒有累於其身，大關風教，請勿齒仕版。”傳曰：“…尹溪以承文院之啓，已達豊川府使矣。其所爲，果若此，則推而罪之可也。餘皆不允。”(《中宗實錄》卷55, 16집 450면)

17) 중종 20년 9월 14일. “憲府以及第尹溪，啓喪不謹事，不承服，請移禁府，從之。”(《中宗實錄》卷55, 16집 452면)

18) 중종 20년 9월 21일. “의금부 죄인 급제(及第) 윤계(尹溪)가 상소하였다. “신은 초야에서 성장하여 전연 족당(族黨)이나 벗들의 원조가 없는 몸인데, 쓸데없이 어리석게 지극히 미웁하고 지극히 용렬한 짓을 하여 오랫동안 물의를 일으키며 오늘에 이르렀고, 심문할 때를 당해서 또한 모두 승복(承服)했으니, 신의 무상(無狀)한 짓은 죄가 만번 죽어도 지당한데 오히려 가벼운 죄를 입게 되어, 신에게 너무나 관대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무슨 낯으로 감히 애매하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떠도는 논이 더러 실정에 지나치게 되었다고 하지만, 금부가 추국(推鞠)할 때면 오래 전지(傳旨)를 받아서 했고, 더구나 신의 몸이 여위고 약하므로 한 번도 형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복한 뒤에야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삼가 그옥이 생각하건대, 나이 많은 병든 어미가 의지할 데라곤 오직 신뿐

한미한 집 출신으로 사람됨이 외람되다는 평을 받는 그는, 당초 윤계와 강은은 모두 才名이 있으므로 회계수가 사위로 삼으려 하였는데, 윤계가 강은보다 먼저 과거에 급제하자, 윤계가 혼인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도리어 적녀를 주었다. 회계수는 무식하니 나무랄 것조차 없으나, 윤계는 조금 학식이 있으면서 차마 이런 일을 하였으므로 사림의 눈밖에 난 지 오래되었다. 후에 沈思順과 벗이 되어 날마다 술마시기를 일삼았었는데, 사순이 諫官이 되어서는 또한 그가 아버지 상자에 근신하지 않음을 논박함으로써 사람들이 심사순이 친구 팔아먹은 것을 아박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윤계의 친구 취택을 잘못한 것 역시 비웃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복직된 것은 3년 뒤였다. 1528년(중종 23) 1월 “이문을 제술하는 일을 최세진 혼자 하고 있는데 만약 질병이라도 나면 달리 할 만한 사람이 없어 이문을 습득한 윤계를 승문원에 常仕시키기려고 하나, 윤계는 죄를 입고 作散되어 지금까지 職牒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편법으로 軍職을 제수하여 상사시키게 할 것을 계청하였다. 이에 중종은 윤계가 흠이 있는 사람이어서 顯職은 줄 수 없지만 직첩을 도로 주어 군직에 붙여 승문원에 상사하도록 하였다.¹⁹⁾ 그해 4월, 윤계는 庭試에서 수석하여 한 資級을 가자받았고,²⁰⁾ 5월에

이고, 고단하고 한미한 신 역시 의지할 데가 오직 성상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우(虞)나라 순(舜)처럼 인(仁)하시고, 아성(亞聖)보다도 총명하시니, 혹 시라도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대목을 살펴주시고 ‘의심스러운 죄는 오직 가볍게 한다.’는 글에 유의하여 주시면 목석(木石)이 아닌 신이 어찌 감격되지 않겠습니까? 죽어서도 보답할 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구구하지만 미미한 소회를 그만 들 수 없습니다.”(《中宗實錄》卷 55, 16집 454면)

- 19) 중종 23년 1월 20일. “光弼、貞、苻等仍啓曰：‘承文院漢語吏文成才者，無之。只有崔世珍一人，而其後，更無能通者，漢語則尹漑、沈達源，頗有將來，然赴京時，不爲同行，故言語不能質正矣。若於一行次同往，則可以相質傳習，請於今次聖節使之行，以此兩人差遣，而且吏文製述事，崔世珍若有疾病，則他無可爲者，但尹溪，於吏文，既已成才，故欲以此人，常仕於承文院事啓請，但此人被罪作散，而時未授職牒，故未得啓請矣。然事大文書，崔世珍不可獨爲也。尹溪雖不可絀於顯職，請除授軍職，令常仕。’傳曰：‘漢語教諷之事，法雖嚴密，近來專不崇尙，此人等，若於漢語，有將來，則令一時赴京，而質正言語，但我國赴京者，若通事則可以周行於市街，朝官則在舍館，不得出入。云如此則似不得質正也。然往來亦有益矣。萬一天使出來，則他通事，不可出入於殿前，不得已使此人等，傳通矣。尹漑、沈達源兩人，於今聖節使行次，並令入送，且事大文書，一人不可獨製，而世珍若有故，則亦難，大臣所啓之意，甚當。尹溪有躉裕之人，顯職則果不可爲也。其還給職牒而付于軍職，使之常仕於承文

는 평안도에 沓文點馬官으로 의주에 가 있다가²¹⁾ 6월에 중국 사람 劉長 등이 湯站으로 도망하여 ‘조선이 정동할 적에 우리들을 길잡이로 삼으려 했다.’고 밀고한 사건이 발생하자 義州 있는 중국 사람 수직을 맡았던 군사들을 추문하는 일을 맡고²²⁾ 8월에는 金同難을 추고하는 일까지 떠맡았다.²³⁾

1534(중종 29) 安邊府使를 역임하였다.²⁴⁾ 윤계는 吏文에 능했던 듯 당시 한어의 대가인 최세진과 《吏文諸書輯覽》 편찬에 참여한 기록도 보인다.

嘉靖 庚子年(1540) 여름에 慕齋 김공이 임금께 아뢰어 纂集局을 설치하고 《吏文諸書輯覽》을 지었는데, 同知 崔世珍·參議 尹漈·僉知 尹溪로 당상을 삼고 吏文學官이 그 일을 맡아 보았다. 《吏文》 《續吏文》은 鄭君 陳 柳大容 李景成 및 나의 형제 등 5명이 함께 그 일을 보았는데, 공에게

院。”(《中宗實錄》卷60, 16집 616면)

20) 중종 23년 4월 23일. 文臣庭試優等, 賞賜有差. [居首尹溪加一資.] (《中宗實錄》卷61, 16집 657면)

21) 중종 23년 5월 22일. “……且前日金同難事亦發遣京朝官而推之。今此金同難事, 至爲重大, 亦當發遣京朝官而推之。雖不得別遣京朝官, 而尹溪今以沓文點馬, 往在義州, 則令尹溪推之可也。遼東移咨, 則今方磨鍊矣。幸於遼東, 若有往復之事, 則尹溪詳知承文院意矣。可爲之故啓之。’ 傳曰: ‘知道。’” (《中宗實錄》卷61, 16집 670면)

22) 중종 23년 6월 20일. “憲府啓曰: ‘臣等聞唐人劉長等, 亡去湯站云, 朝鮮征東時, 以我等爲鄉道云。征討之事, 朝廷時未定議, 虛事漏洩, 非特湯站, 將轉聞上國矣。唐人所聞必有所從, 守直人及通譯者, 俱在焉。可據而推之也。軍機重事, 在我國, 尚不可虛洩, 況致聞於上國, 此豈國家細事也, 須與大臣議處, 以杜漏洩機密事之路。’ 傳曰: ‘當初自上, 見其啓本, 至爲驚愕, 軍機重事, 雖漏洩于胡人, 尚且不可, 況轉聞於上國乎。當初推其守直人, 則其招云。劉長等, 常時思戀本土, 日夜悲號云。劉長等, 雖以征東事, 言于湯站, 其實聞此事而言之, 抑爲誣言乎。是未可知也。然劉長等, 既以事, 言于上國, 我國則不可謂不言于劉長也。義州守令則已議于大臣而推之, 譯學訓導及守直人, 則未及推之。今與大臣, 有別爲謀議之事, 則未可知也。但予意, 嚴推守直人等而決罪時, 當與大臣議爲也。譯學訓導及守直人, 其令點馬尹溪, 推之。’” (《中宗實錄》卷61, 16집 679면)

23) 중종 23년 8월 17일. “傳曰: ‘推考金同難, 敬差官欲差遣, 但平安道使命煩多, 欲使元繼蔡推之而繼蔡, 又爲巡邊使從事官, 故使尹溪 [時以義州官吏推考事, 在平安道.] 推之, 以大臣所啓之意推聞事。下書于尹溪, 并諭于其道監司。’” (《中宗實錄》卷62, 17집 24면)

24) 중종 29년 11월 21일. “諫院啓曰: ‘安邊府使尹溪, 素有物論, 臨民不合, 請遊。學官孫溥, 殘忍害倫之人, 不可復齒朝列, 請改正。’ 皆不允。” (《中宗實錄》卷78, 17집 549면)

아뢰어 의논하는 일은 유대용이 주로 하고, 원고를 고치고 가리고 의논하는 일은 내가 주로 맡아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윤참의는 충청도안찰사로 나가고, 윤첨지는 延安郡守로 나가 崔同知가 혼자서 맡아 전부를 꾸려나갔다. 이듬해 신축년 봄에 책이 완성되어 서국에 명하여 출판하게 하였는데, 무릇 吏語 및 중국의 대소 관제로서 각 서적에 보이는 것은 모두 자못 자세히 주석했으므로, 이 책을 펴 보던 분명하며, 이른바 책은 돌아가기 마련인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간혹 억지로 끌어다 낸 것이 한둘, 또 자세하지 않은 것이 몇 조목 있으나, 그후 여러 차례 중국에 가서 물어 본 바도 많이 있다. 그러나 찬집이 오늘날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아깝다.²⁵⁾

1545년(인종 1)에 명나라 황제가 우리나라 陪臣에게 특별히 一品宴을 예부에서 내려주고 또 濟州에서 표류해 사람을 돌려보내 주었다 하여, 임금께서 兪知 尹溪를 보내어 사은하였다.²⁶⁾ 아무튼 《花影集》이 吏文學官인 윤계에 의해서 국내에 반입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1549년(명종 4) 목관으로 국내에서 간행된 《剪燈新話句解》는 역시 吏文學官인 垂胡子 林芑에 의하여 集釋되었다. 특기할 것은 그 註解가 단순히 소설을 즐기기 위함만이 아니라 외교를 담당하는 胥吏들의 실용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3. 《花影集》 발문과 崔崇

《花影集》은 곤양군수로 있던 尹景禧에 의해 편각된 것이다. 司馬榜目に 의하면 通德郎으로 자는 菴翁, 부친의 이름은 桺이며, 1562년(명종 17, 壬戌) 春別試에 丙科에 급제하여 監正을 지냈는데, 선조실록에 의하면 1581년(선조

25) 嘉靖庚子夏, 慕齋金公啓, 設纂集局, 撰吏文諸書輯覽, 以崔同知世珍、尹參議漑、尹兪知溪爲堂上, 以吏文學官掌其事, 《吏文》《續吏文》則鄭君陳柳大容李景成, 及余昆季等五人雜就之, 于公奏議則柳大容主之, 《駁稿》《奏議擇稿》則余主之, 未幾尹參議出按忠清, 尹兪知出作延安, 崔同知獨專摠裁, 明年辛丑春崙成, 命書局印出, 凡吏語及中朝大小官制之見於各書者, 註釋頗詳, 開卷了然, 殆所謂如客得歸者也, 但其間有一二牽強處, 又未詳者若干條, 其後屢往中朝, 頗有所質, 惜其纂集之不在於今日也。《大東野乘》卷之四 <裨官雜記一> (《국역대동야승1》 민족문화추진회, 1983. p.754.)

26) 嘉靖乙巳, 帝特賜本國陪臣一品宴于禮部, 又送濟州漂海人口, 上遣命兪知尹溪謝恩。《大東野乘》卷之四, 《국역대동야승1》, 민족문화추진회, 1983. p.733.)

14) 3월 信川郡守로 재직 중 황해감사에 의해 救荒을 잘한 수령으로 載寧郡守 崔岵 등과 함께 보고되어 각각 表裡 한 벌씩을 하사받았으며,²⁷⁾ 4월 황해도 어사 金應南은 “신천 군수 윤경희는 慈祥하고, 재령 군수 최립은 廉簡하다”라고 장계한 기록이 보인다.²⁸⁾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 1593년(선조 26) 6월 “司僕正 윤경희가 咨文을 가지고 가는데, 문안하는 일까지 겸할 것을 자청하여,²⁹⁾ 7월 司僕副正 윤경희가 李提督에게 문안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다.”³⁰⁾는 기록이 있다.

발문을 쓴 崔岵(1539~1612)은 본관이 通川으로 자는 立之, 호는 簡易·東臯. 진사 自陽의 아들로 빈한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타고난 재질을 발휘하여 1555년(명종 10) 17세의 나이로 진사가 되고, 1561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어 여러 외직을 지낸 뒤 1577년(선조 10) 주청사의 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81년 載領郡守로 飢民을 구제하는 데 힘써 表裏를 하사 받았고, 그해 다시 주청사의 질정관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582년 成川府使가 되었다. 1586년(선조 19) 護軍으로 吏文庭試에 수석하여 嘉善으로 자급이 올랐다.³¹⁾ 1592년 공주목사, 이듬해 전주부윤을 거쳐 승문원제조를 지내고, 그해 다시 주청사의 질정관, 1594년 주청부사가 되어 각각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判決事, 1606년 동지중추부사, 이듬해 강릉부사를 지내고 형조참

27) 선조 14년 3월 28일. “黃海監司善狀, 載寧郡守崔岵, 信川郡守尹景禧, 安岳郡守尹晁, 延安府使尹斗壽, 海州牧使宋鏞, 善爲救荒事入啓. 傳曰: ‘各別下書褒之, 各賜表裡一襲.’” (《宣祖實錄》卷15, 21집 374면)

28) 선조 14년 4월 3일. “黃海道御史金應南啓曰, “信川郡守尹景禧慈祥, 載寧郡守崔岵廉簡, 康翎縣監柳渭庸劣不治.” 傳曰: ‘尹景禧·崔岵則因監司狀啓, 已爲褒賞矣. 柳渭庸罷職.’” (《宣祖實錄》卷15, 21집 375면)

29) 선조 26년 6월 24일. “上敎政院曰: ‘李提督, 以不爲問安爲言云. 移咨時問安, 仍告以車駕來此, 趨來前進之意.’ 回啓曰: ‘司僕正尹景禧, 咨文資去, 兼爲問安事差定矣. 趨未前進之意, 令尹景禧, 言于接伴使, 使之措辭以告.’” (《宣祖實錄》卷39, 22집 18면)

30) 선조 26년 7월 17일. “司僕副正尹景禧問安于李提督來, 啓曰: ‘如此暑熱, 特遣陪臣問安, 多謝厚意, 倭奴今復猖獗, 本府調精兵一萬, 以待的確消息, 數日內發向全羅道, 今日明日, 遊擊戚金王問, 領火砲手四千, 先發選云.’” (《宣祖實錄》卷40, 22집 42면)

31) 선조 19년 10월 1일. “護軍崔岵, 以吏文庭試居首, 加階嘉善. 兩司啓請.” (《宣祖實錄》卷20, 21집 427면)

판에 이르러 사직하고 평양에 은거하였다. 그는 당대 일류의 문장가로 인정을 받아 중국과의 외교문서를 많이 작성하였다. 특히, 임진왜란중 명나라의 관계가 빈번하여지자 문장으로 보국하였다. 그리고 중국에 갔을 때 중국문단에 군림하고 있던 王世貞을 만나 문장을 논하였고, 그곳 학자들로부터 명문장가라는 격찬을 받았다. 草·木·花·石의 40여종을 소재로 한 시부가 유명하며, 역학에도 심오하여 《周易本義口訣附說》 등 2권의 저서가 있다. 그의 文과 車天輅의 詩, 韓濩의 書를 “松都三絕”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시보다 문으로 이름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에서도 蘇軾과 黃山谷을 배워 풍격이 豪橫하며, 質致深厚하고 聲響이 굳세어 금속에서 나오는 소리 같다는 평을 들었다. 문장은 일시를 품미하였다. 당대 명나라에서 유행하던 왕세정 일파의 문장에 경도하여 古雅簡潔하며, 법도에 맞는 글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擬古文體에 뛰어났기 때문에 문장이 평이한 산문을 멀리하고 先秦文을 모방하여 억지로 꾸미려는 경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글씨에도 뛰어나 宋雪體에 일가를 이루었다. 문집으로 《簡易集》이 있고, 시학서로 《十家近體詩》와 《漢史列傳抄》 등이 있다.³²⁾

4. 《花影集》의 내용

《花影集》은 명대 文言小說集으로 陶輔(1441~?)가 弘治 초에 지어 嘉靖 초에 판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³³⁾ 원간본은 일실되어 찾아볼 수 없다. 《百川書志》 小史類와 《千頃堂書目》 小說類에 저록되어 있다. 작자 陶輔(1441~?)의 자는 廷弼, 호는 夕川老人, 安理齋 또는 海華道人이며 鳳陽人이다. 그

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424. / 《韓國文集叢刊 解題 2》, 民族文化推進會, 1998. 12. p.290.

33) “題曰‘花影集’，亦自以爲得意之作也。是後數年，得暇求學，方知聖賢旨意，深以前作爲非，擲而不睹者三四十載。今予之年八十有三，衰耄已至，兒輩點予書篋，出其生平稿帙，意欲裝輯以爲遺澤。適有‘花影’一集存焉。告予曰：‘此亦成書，何不序乎？’予舍而嘆曰：‘欲存而序之，實非當爲之事；欲棄而焚之，其奈三先生何？予獨何人，敢望每事盡善乎？’故勉以爲引。嘉靖二年夏四月吉旦，夕川老人八十三翁書。” <花影集引>

의 선조는 軍功으로 大同伯에 봉해졌다. 陶輔는 음관으로 應天衛指揮를 세습 받았다. 그는 무인이었으나 문학을 좋아하였다. 張孟敬은 <花影集序>(1516, 正德11)에서 “공은 貴遊子로 무예를 낮게 여겨 힘쓰지 않고 경사와 글쓰기에 힘쓰니 그 같고닭음이 실로 깊다. 응천친위소용의 작위를 세습하였으나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때로 쉬며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그 뜻을 넓혔다. 붓을 들어 화선지를 적시매 그 해박함을 마음껏 펼치고 친구와 옛사람을 좋아하여 즐겨 시대의 변화를 살펴 그 정을 극진히 하였다. (公以貴遊子, 薄武藝而不事, 專志於經史翰墨間, 其蓄之深固有自矣. 暨襲應天親衛昭勇之爵, 又不苟合於時, 即時丐恩休致, 尋山玩水, 又豁其趣; 操觚染翰, 以肆其博; 尚友古人, 樂觀時變, 以極其情.)”고 한 데서도 그의 취향을 엿볼 수 있다. 陶輔의 저작은 매우 많아 《桑榆漫志》 1卷, 《四端通俗詩詞》 1卷, 《夕川愚特》 2卷, 《蜩癡清娛》 2卷, 《閩檐通俗詩詞》 1卷과 《夕川詠物詩》 1卷이 있다(《百川書志》에 보인다).³⁴⁾

《花影集》은 4권 20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卷一	卷二	卷三	卷四
退逸子傳	節義傳	邗亭宵會錄	丐叟歌詩
劉方三義傳	賈生代判錄	郵亭午夢	翟吉翟善歌
華山採藥記	東丘侯傳	心堅金石傳	雲溪樵子記
潦倒子傳	廣陵觀燈記	四塊玉傳	閑評清會錄
夢夢翁錄	管鑑錄	龐觀老錄	晚趣西園記

권수에 張孟敬의 <花影集序>와 작자의 <花影集引>(1523, 嘉靖2)이 있어 이 책에 실린 각편의 위치와 작자의 창작동기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작자는 장년 시절 《전등신화》 《전등여화》 《효빈집》 등 세 책을 읽고 “삼가의 지은 이치가 다르나 제각기 볼 만한 것이 있다. 그러나 心態를 토로하고 精蘊을 맺음에 出色이 현란하고 鬼幻이 백출하여 천학자의 이를

34) <前言> [明] 陶輔 撰 程毅中 校點, 《花影集》 [明] 鈞駕湖客 撰 徐野 校點, 《鶴渚志徐雲窓談異》 합본, 吉林大學出版社, 1995.11. p.2.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에 스스로를 헤아리지 못하고 삼가 득실의 일단을 비교하여 번다한 것은 줄이고 소략한 것은 기워 20편을 지어 “花影集”이라 이름 하니 스스로 득의의 작품이라 생각한다”³⁵⁾라고 하였다. 그런데 20편 가운데 일부는 史傳을 실록하였고, 일부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며, 또 어떤 것은 우화나 가락에 가깝다. 일부 작품의 주인공은 작가 자신을 대변하고 있다. 예컨대 <退逸子傳>의 주인공은 “성이 鮑이고 명은 道로 抱道先生이라고도 한다”, <廣陵觀燈記>의 “余論”, <閑評清舍錄>의 “閑評” 등등이 그것이다.

그 서문에 <권수의 <퇴일자전>은 공 자신을 이야기한 것이다. 비록 절세의 높이는 말이 있으나 마침내는 스스로를 두터이 하되 남을 비난하는 의미를 담지 않았으니 이는 실로 거룩하다. 맨마지막의 <晚趣西園記>, 중간의 <夢夢翁錄>은 벼슬을 버리고 산과 계곡에서 노닐며 유유자적하는 소회를 서술하였다. 대개 巢父와 許由, 백이 숙제 이후 엄자룡, 도연명, 임군부의 뒤에 우리나라에 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가장 고결하지 않은가? 그 가운데 <劉方> <節義傳> <東丘侯傳>은 다 충효절의를 실록한 것으로 세상의 권계가 됨즉하다. 동구 일문의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킨은 더욱 열렬하고, 그 칩 손씨가 본처의 아들을 키운 공 또한 크다. 다른 것은 다 우화이나 <潦倒子傳>은 송나라 사직이 기웁을 천도로 돌려 간신을 배척하고 충신을 기리는 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雲溪樵子記>는 송나라 말의 재앙을 하늘의 응보로 말미암은 것으로 말하면서 신하된 자의 충성되고 비분강개한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 <鄕亭午夢>은 인신의 충의를 장려하는데, 비록 사람에게 신원을 보지 못하나 마침내는 하늘의 보답을 받는다. <華山採藥記>는 煉丹術에의 인도가 그릇됨을 밝혀 인간의 미혹됨을 일깨우고, <閑評清舍錄>은 귀신의 조화의 이치를 깊이 밝혀 이 세상의 혼미함을 일깨운다. <四塊玉傳>과 <心堅金石傳>은 문장을 빌어 사건을 비유하여 음난하고 사악하며 사사로이 아부함으로써 덕을 망치고 화를 부름을 경계한다. <廣陵觀燈記>와 <管鑑錄>은 다 가락이나 하나는 이단의 폐단을 물리침이 지극하고 다른 하나는 선악의 응보를 분변함이

35) “雖三家造理之不同，而備有所見，然皆吐心葩，結精蘊，香色混眩，鬼幻百出，非淺學者所能至也。予不自揣，遂較三家得失之端，約繁補略，共爲二十篇，題曰《花影集》，亦自以爲得意之作也。” <花影集引>

상세하다. <賈生代判錄>은 錢神의 유지를 바탕으로 이 세상의 탐욕을 경계하여 청렴케 한다. <邗亭宵會錄>은 남녀의 아름다운 만남을 빌어 세상사람의 음난하고 사악함을 경계하여 바른 데로 돌아가게 한다. <翟吉翟善歌>는 인간의 정이 길한 것을 좃고 흉한 것을 피하며 나아가 선을 베풀고 악을 제거하도록 한다. <龐觀老錄>은 술 여색 물욕 혈기의 모습을 꼭진하게 묘사하여 징계를 알게 한다. <丐叟歌詩>는 부귀와 빈천은 자신에게 달렸음을 밝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 이 모두는 世敎와 관련이 있다. 이전 사람의 《新話》《餘話》《效顰》과 비교컨대 문사가 다르고 주장이 지나친 감이 있다”³⁶⁾ 라고 하였다. 전체를 종합해 보건대 설교적인 분위기가 짙고 일부 작품은 줄거리가 빈약한 데다 대량의 시와 사를 삼입하여 소설로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劉方三義傳> <節義傳>이나 <心堅金石傳> 등은 줄거리가 우여곡절이 있고 이야기에 생동감이 넘친다. 특히 후자는 애절하고 감동적이며 의미심장하여 실로 전기 중佳作이라 할 수 있다. 나중에 《燕居筆記》나 《繡谷春容》³⁷⁾ 등 책에 수록되어 후대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가장 대표적

36) 首之以<退逸子傳>, 公自道也。雖有絕世自高之言, 卒豈不忘躬自厚, 而薄責于人之意。此固偉矣。終之以<晚趣西園記>, 間以<夢夢翁錄>, 則又敍其休致林泉、幽雅自適之情懷。蓋自巢、許、夷、齊而下, 嚴子陵、陶靖節、林君復之後, 我朝而有若人, 此其最高歟? 予中若<劉方>、<節義傳>、<東丘侯傳>, 則皆實錄其忠孝節義, 足爲世勸。而東丘一門死節尤烈, 其妾孫氏植孤之功尤大。其他雖皆寓言, <潦倒子>以宋社之傾, 歸之天道, 而抑奸獎忠之言, 溢于言表。<雲溪子>又言宋末之禍, 由天果報, 而臣子忠憤之情, 自不容己。<鄭子午夢>則獎人臣之忠義, 雖不見伸于人, 終當獲報于天也。<華山採藥記>深明黃白導引之非, 以醒世人之狂惑; <閑評清會錄>, 深明鬼神造化之理, 以覺斯世之昏迷。<四塊玉傳>與<心堅金石傳>, 托詞比事, 以爲淫邪私媼, 敗德致禍之懲。<廣陵觀燈記>與<管鑑錄>, 雖皆假托, 一則辟異端之爲害至矣, 一則辯善惡之果報詳矣。<賈生代判>, 則本古人錢神之遺意, 以激斯世之貪, 而使之廉也。<邗亭宵會>, 則托士女佳遇之風情, 以戒世人之淫邪而歸之以正也。<翟吉翟善>, 則因人情之趨吉避凶而導之, 使爲善去惡也。<龐觀老>, 曲盡酒色財氣之情狀, 使人之知所懲。<丐叟歌詩>, 一明高貴貧賤之自取, 使人之知所擇。凡此皆于世敎有關, 視前人《新話》、《餘話》、《效顰》諸作, 文詞不同而立意過之。<花影集序>

37) 12권. 일명 “懸壺撫粹嚼麝譚苑”. 明 萬曆 연간 金陵 世德堂 간본으로 본문은 상하 2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두 소설 13종이 있다. “新話撫粹” 1층은 단편 16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층의 한면은 14행이고, 1행은 20자이며, 하층의 한면은 12행이며 1행은 17자이다. 傳奇 10편(吳生壽芳雅集 / 龍會蘭池全錄 / 聯芳樓

인 작품 2편을 살펴본다.

5. 〈心堅金石傳〉

心堅金石傳: 원대 후기 어느 가을날 송강 청년 이언직은 친구와 시를 읊게 되었는데, 이언직이 시를 다 쓴 다음 무심코 시전지를 담 밖으로 던졌다. 마침 기생 장노파의 딸 여용이 줍게 되었다. 장여용은 열일곱 나이로 얼굴이 예뻐다. 시를 본 후 화답시를 적어 담장 안으로 되던졌다. 이언직은 장여용의 시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급기야 장여용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씨 집안에서 반대하여 “언직은 학업을 폐하고 정신이 흐려지더니 식음을 전폐하고 미친 듯 어린 듯 하기를 일년여나 하였다. 그동안 장여용도 손님을 받지 않았다. 이씨 부모는 할수없이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혼례날이 가까워졌을 때 큰 변화가 생겼는데, 탐욕스런 우승상 伯顔이 욕심이 많아 참정 阿魯台 등에게 만금을 바칠 것을 강요하였다. 바칠 돈이 없어 고민하던 아로태에게 그의 부하 한 사람이 돈 대신 아리따운 장여용을 바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꾀를 내었다. 이렇게 해서 장여용은 배로 서울로 보내졌다. 이공자는 이 소식을 듣자 배를 타고 두 달여 동안 뒤따라 갔고, 배가 臨淸에 이르렀을 때 이공자의 두 발은 짓무르고 온몸은 탈진한데다 서울에 다다른 후에도 두 사람이 다시 결합할 희망이 없게 되자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다. 길가던 사람이 그를 언덕 옆에 묻어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여용은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로태는 화가 난 나머지 장여용의 시신을 불태워 버렸다. 장여용의 전신은 재로 변했으나 심장 만은 그대로 있었는데 황금처럼 빛나고 돌처럼 단단하였다. 아로태는 다시 이공자의 시신도 불질렀는데 그의 심장도 금석과 같았다. 어떤 사람이 이 기이한 돌 두 개를 백안에게 만금에 값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백안에게 바칠 것을 제안하였

記 / 劉熙環覽蓮記 / 申厚卿嬌紅記(일명 嬌紅擁爐記) / 白潢源三妙傳(일명 花神三妙傳) / 李生六一天錄 / 祁生天緣奇遇 / 古杭紅梅記 / 牽駱鍾情集.) 등과 心堅金石傳 등 단편 125 편이 실려 있다.

고 아로태는 사람을 시켜 우승상에게로 보냈다. 설명을 들은 백안이 구경하고자 했을 때 금옥은 커녕 썩은 피덩어리만 남아 있었다. 대노한 우승상은 이언직과 장여용을 핍박하여 죽게 한 죄로 아로태를 참수하였다.

이 글은 이언직과 장여용이 생전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함을 위해 완강하게 투쟁하는 모습과 사후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통해 변치 않는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표현하였고, 아로태나 백안처럼 자신의 부와 지위만을 탐하면서 일반 백성의 결혼생활을 파괴하는 추악한 모습을 비판하였다. 이야기가 굴곡이 있고 언어가 소박하고 유려하며 사상내용을 잘 표현하였다.

이야기는 명대 널리 유행하였으니 《繡谷春容》에도 전제되었고, 거의 같은 시기에 公案小說로 각색되어 《百家公案》(1594) 제5회,³⁸⁾ 《包公演義》(1597) 제5회에³⁹⁾ “辨心如金石之冤”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내용은 이러하다.

李彦秀는 기생 張麗春과 서로 사랑하였다. 언수는 약혼을 하려 매파를 보냈으며, 장래를 장차 기약하였는데 여용은 주참정에 의해 뽑혀 왕 우승상에게 바쳐지게 되었다. 언수는 그녀를 빼내려고 백방으로 주선하였으나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마침내 언수가 죽자 여용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참정은 노하여 그 시신을 불살랐으나 심장만은 죽지 않았다. 이를 깃밥이니 각각 작은 사람 모양이 생겨났는데 황금처럼 빛나고 돌처럼 단단하였다. 장여용의 심장이 변한 작은 인형은 이언수를 닮고 이언수의 심장이 변한 인형은 장여용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참정은 이를 왕우승상에게 바쳤다. 우승상이 보려고 하자 갑자기 썩은 피 한 덩어리로 변하였다. 우승상은 대노하여 포공에게 고발하였다. 포공이 두 사람을 위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고 참정은 사형에 처했으며 아들은 변방 군인으로 유배시키고 왕우승상은 파직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상의 줄거리에서 보듯 주인공 李彦直이 李彦秀로 바뀌고 나중에 포공에게 고한다는 이야기가 새로 들어가 있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청대 나온 《龍圖公案》에는 이 이야기가 빠져 있다.

38) [明] 安遇時 編集 朴在淵 校注, 《百家公案》, 江原大出版部, 1994. pp.18~22.

39) [明] 完熙生 編 朴在淵 校點, 《包公演義》, 學古房, 1995. pp.10~12.

희곡 《霞箋記》는 작자 미상으로 2권 30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呂天成의 《曲品》에는 이 극을 “中品”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心堅金石傳>이 죽은 사람이 환생하고 헤어졌다가는 재결합한다는 이야기로 전형적인 전기체이다. 심히 강렬하고 절실하며 만나고 싶어하는 사랑의 고통을 그렸으나 문사가 소략한데 이는 필력이 떨어진 때문이다.”⁴⁰⁾라고 하였고, 祁彪佳(1602~1645) 《遠山堂曲品·雅品殘稿》에서는 “청루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오로지 우여곡절로 그 맛을 얻으니 《西樓》에 이르러서는 더욱 유려하다. 그 밖은 설 자리가 없다.”⁴¹⁾ 또 《서루》를 평하면서 “청루를 전하는 것은 많으나 《서루》가 나오면서 《繡襦》나 《霞箋》은 모두 뒤로 밀렸다”⁴²⁾고 하였다. 명 萬曆 金陵 廣慶堂 간본이 있고 명말 汲古閣 원각 초간본 육십종곡본이 있으며 劉氏 暖紅室 彙刻 傳奇는 광경당본을 가지고 복각한 것이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 1 家門始末 2 中丞訓子 3 麗容矢志 4 霞箋題字 5 和韻題箋 6 端陽佳會 7 灑銀求歡 8 烟花巧賺 9 灑銀起釁 10 父子傷情 11 求美結歡 12 書房私會 13 聘求佳麗 14 麗容行售 15 被賺登程 16 踰牆得喜 17 追逐飛航 18 得寵遭妬 19 探音獲寶 20 麗容習禮 21 主僕相逢 22 驛亭奇遇 23 駙馬聯姻 24 春闈首選 25 訴情得喜 26 霞箋重會 28 養親辭歸 29 司書報喜 30 書錦榮歸

내용은 <심견금석전>과 거의 같으나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다르다. 맨 나중에 李玉郎(이언직)이 서울로 쫓아가 자신과 여용은 이종사촌 남매라 하여 백언에게 한 번 만나게 해줄 것을 간청한다. 백언은 여용을 이미 부인 안채에 두어 태후에게 보내려고 한다. 시晝는 계책을 세워 옥랑과 내졸로 분장하고 여용을 호송하는 행렬에 깐다. 역참에서 여용은 옥랑을 알아보고 서

40) “此卽<心堅金石傳>, 死者生之, 分者合之, 是傳奇體. 搬出甚激切, 想見鍾情之苦. 但詞覺草草, 以才不長故.”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 6》, 中國戲劇出版社, 1980. p.249.)

41) “傳青樓者, 唯此委婉得趣, 到《西樓》更大暢, 此外無餘地容人站脚矣.”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6》, 中國戲劇出版社, 1980. p.125.)

42) “傳青樓者多矣, 自《西樓》一出, 而《繡襦》、《霞箋》皆拜下風. ……”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6》, 中國戲劇出版社, 1980. p.10.)

로의 마음을 헤아리지만 내색하지 못한다. 한편 옥랑은 과거에 장원급제함으로써 상황은 반전된다. 즉 울도부마와 화화궁주의 도움으로 하전으로 서로 응하여 서로 상봉하여 나란히 금의환향한다.

何大掄의 《燕居筆記》 권7과 馮夢龍의 《情史》에 모두 전재되어 있으며 백화소설 《霞箋記》, 일명 “情樓迷史”는 바로 이를 개작한 것이다. 현재 북경도서관에 청 醉月樓 간본이 유일본으로 소장되어 있으며 다른 판본은 보이지 않고 있다. 속표지에 “新編情樓迷史”라 제하였고 卷端에 “新刊霞箋記”라 되어 있다. 서발문, 삽화, 평은 없다. 본문은 한 면은 9행, 1행은 20자로 되어 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 1회 中丞延師訓愛子 霞箋題字覓姻緣
- 제 2회 麗容和韻動情郎 彥直得箋赴佳會
- 제 3회 灑良公子求歡娛 麗容拒絕起禍端
- 제 4회 灑良定計拆鴛鴦 中丞得書禁浪子
- 제 5회 麗容乘便去探病 中丞回府受虛驚
- 제 6회 都統凱旋選美女 麗容被驅上京都
- 제 7회 麗容無奈寄血詩 玉郎情急追飛航
- 제 8회 翠娘墜計入相府 夫人拈酸獻內宮
- 제 9회 玉郎相府探音信 丞相施恩送蕭寺
- 제10회 主僕相遇換戎衣 隔牆續舊得奇逢
- 제11회 金亭館驛快合羣 公主點鬢露真情
- 제12회 駙馬賠粧送寓所 辭朝省親求團圓

위 중의 회목과 본문의 회목은 3회에 걸쳐 약간 다른 것이 눈에 띄이는데, 제7회 후구가 목록에서는 “玉郎情急追飛航”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玉郎情急追飛航”으로, 제8회 “翠娘墜計入相府, 夫人拈酸獻內宮”은 본문에서는 “伯顏丞相納麗容, 奇妒夫人獻內宮”으로, 제9회 후구가 목록에서는 “丞相施恩送蕭寺”라고 되어 있는데 반해 본문에서는 “丞相施恩送寺中”으로 되어 있

다.⁴³⁾ 내용은 이언직이 繪景樓에서 명기 장여용을 만나 담 넘어로 하전에 시를 써서 주고 받고 사랑하다가 都統制 阿魯台에 의해 장여용이 서울로 올려 보내져 우여곡절 끝에 부마 부중으로 들어가 공주를 모시게 되고 언직은 승상 백안의 도움으로 장원급제하여 여용과 재결합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화영집》의 <심견금석전>과는 달리 이 장회소설은 행복한 결말로 끝맺고 있다.

6. 〈劉方三義傳〉

《화영집》 가운데 가장 환영을 받았던 또 하나의 작품은 <劉方三義傳>이다. 줄거리는 이러하다. 명대 宣德 연간에 河西 지방에 劉氏 성을 가진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두 노인이 외지에서 온 부자 두 사람이 사경을 헤메고 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데려와 간호하였다. 반달만에 아들은 소생했으나 아버지는 병사하였다. 아들은 성이 方氏로 열두어 살로 유씨 노인은 그를 양자로 삼고 劉方으로 개명하였다. 수년 후 상류에서 낚은 배 한 척이 떠내려왔다. 그 안에 빈사상태에 빠진 젊은 부부가 타고 있었다. 구호한 끝에 남편은 살고 처는 죽었다. 남편의 이름은 劉奇로 나이가 스무 살로 박학다재하였다. 유방이 총명함을 보고 시문을 가르쳤고 열 달이 못되어 유방도 글을 통하게 되었다. 유기와 유방은 성은 다르지만 결의형제를 맺었다. 일년 후 유씨 부부는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유기는 동생 유방을 장가보내려 하였으나 유방은 한사코 반대한다. 유기는 시를 지어 두 숫제비가 동지를 트는 것을 비유하여 “제비동지를 트는데 쌍쌍이 숫컷이라네.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동지를 이루나 암컷을 찾아 알을 품지 않으면 동지가 만들어져도 결국은 텅 비겠네”⁴⁴⁾라고 읊자 유방이 “제비동지를 트려고 쌍쌍이 나네. 하늘은 암수컷을 두어 오랫동안 함께 하였으니 암컷은 숫컷을 얻어 이미 죽할진대 숫컷은 암컷인 줄 어

43) 《中國古代珍稀本小說3》(春風文藝出版社, 1995.)《中國古代孤本小說集3》(中國文史出版社, 1998.)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44) 營巢燕, 雙雙雄, 朝暮辛勤巢已成。若不尋雌繼穀卵, 巢成畢竟巢還空。

찌 어찌 모르는가?”⁴⁵⁾라고 화답하였다. 그제야 유기는 비로소 유방이 여자임을 깨닫고 이를 캐묻자 유방은 자신이 여자였음을 실토한다. 당초 부자가 유랑할 때 먼길 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 남장을 했노라고 하였다. 유기는 유방에게 청혼하자 유방은 청혼을 받아들인다. 그 후 자손이 번창하고 재산이 늘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한글 번역 <뉴방삼의전>이 전한다. 종전에 낙선재본 《태평광기언해》 권지이에 실려 있었으나 원전 《太平廣記》에는 실려 있지 않아 작품의 출처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⁴⁶⁾ 고어와 고문체로 보건대 18세기에 전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역문은 《화영집》 소재 <유방삼의전>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 또 다른 이본이 있었거나, 아니면 역자에 의해 변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문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유씨 집에 의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번역문에는 어머니가 아들(사실은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젊은 부부가 배를 타고 떠내려 왔을 때 둘 다 살아 있다가 나중에 처가 죽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번역본에서는 처음부터 남자만 살아서 떠내려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형제가 장성하여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채연시”를 읊어 동생이 여자임을 깨달으나 역문에서는 늙은 종이 귀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로 분장하고 공부하는 이야기는 梁山伯과 祝英臺 이야기와 비슷하다. 명대 《玉芝堂談薈》 가운데 <女子男飾> 조, 《情史》 권2 <劉奇>조,⁴⁷⁾ 何大掄과 余公仁本 《燕居筆記》에 수록되었다. 명 잡극 《三義記》, 范文若의 傳奇 《雌雄旦》, 청 전기 《彩燕詩》 등은 모두 이 이야기를 부연한 것이며⁴⁸⁾ 馮夢龍의 話本 소설집 《醒世恒言》 제10권의 <劉小官雌雄兄弟>로 개작되는 등 널리 유행하였다.

45) 鶯巢燕, 雙雙飛, 天設雌雄事久期. 雌兮得雄願已足, 雄兮將雌胡不知?

46) 金一根, <태평광기언해 해제>, 《國學資料와 研究 태평광기언해본》 제1집, 靑光文化社, p.7.

47) “宣德間, 河西務劉翁夫婦, 業沽酒, 家亦小康, 年俱六十餘, 無子.…… 大劉雖口端人, 終是駭漢. 小劉固然貞女, 誠亦巧人.” ([明] 馮夢龍, 《情史》, 岳麓書社, 1991. pp.49~50.)

48) 寧稼雨 撰, 《中國文言小說總目提要》, 齊魯書社, 1996. p.230.

7. 맺는말

이상으로 《花影集》의 조선 전래와 작품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대 陶輔(1441~?)의 문언 전기소설집 《화영집》은 弘治 초에서 嘉靖初에 지어져 1523년경 초간본이 나왔다. 《百川書志》《千頃堂書目》 등에 저록되어 있을 뿐 중국에서는 일실되었으나 유일하게 조선 복각본이 일본 와세다대학에 소장되어 작품의 전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화영집》은 중종 때 吏文에 능한 僉知 尹溪가 1546년 중국에 갔을 때 구해온 것을 40년 뒤인 1586년 昆陽郡守로 있던 尹景禧가 昆陽(지금의 泗川 지방)에서 판각한 것이다.

셋째, 《화영집》의 발문은 선조 때 송도삼절의 하나로 문장이 뛰어났으며 주청사로 여러 번 명나라에 다녀온 적이 있는 崔崧(1539~1612)이 1586년에 친필로 쓴 것이다.

넷째, 《화영집》은 《剪燈新話》《剪燈餘話》《效顰集》《嬌紅記》과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지방에서 인출된 전기집의 하나이다.

다섯째, 《화영집》 가운데 가장 환영을 받았던 작품은 <心堅金石傳>과 <劉方三義傳>이다. 전자는 공안 단편소설집 《包公演義》의 한 편인 <辨心如金石之寃>과 회곡 《霞箋記》, 백화 장회소설 《情樓迷史》로 각각 개편되어 후대에까지 널리 유행하였고, 후자는 傳奇 《雌雄旦》 청 전기 《彩燕詩》, 馮夢龍의 화본소설집 《醒世恒言》의 한 편인 <劉小官雌雄兄弟>로 개작되었다.

여섯째, 《화영집》 가운데 한 편인 <劉方三義傳>은 한글로 번역되어 낙선재본 《태평광괴언해》에 실려 있다. 원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다른 이본을 번역했거나 번역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어와 고문체로 보건대 18세기 필사본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花影集》 영인본을 제공해 주신 程毅中 선생과 尹溪와 尹景禧, 成都를 찾는 작업을 도와준 안장리 선생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참고문헌〉

- [明] 陶輔 撰 程毅中 校點, 《花影集》, 吉林大學出版社, 1995.11.
《朝鮮王朝實錄》 探究堂,
崔垚, 《簡易集》, 韓國文集叢刊 49, 民族文化推進黨, 1990. 11.
《韓國文集叢刊解題 2》, 民族文化推進黨, 1998. 12.
金一根, 《國學資料와 研究 太平廣記諺解》 제1-3집, 書光文化社, 1990.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 亞細亞文化社, 1989.
黃森 主編, 《中國歷代小說辭典》 제2권, 雲南人民出版社, 1993.
寧稼雨 撰, 《中國文言小說總目提要》, 齊魯書社, 1996.
毛晉 編, 六十種曲本 《霞箋記》, 中華書局
李修生 編, 《古本戲曲劇目提要》, 文化藝術出版社, 1997.
[明] 馮夢龍, 《情史》, 岳麓書社, 1991.
[明] 安遇時 編集 朴在淵 校注, 《百家公案》, 江原大出版部, 1994.
[明] 完熙生 編 朴在淵 校點, 《包公演義》, 學古房, 1995.
《中國古代孤本小說集》, 中國文史出版社, 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江蘇省社會科學院 編 오순방 외 역,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 제3권, 울산대
학교 출판부, 1997.
《大東野乘》 卷之四, 《국역대동야승1》, 민족문화추진회, 1983.
《攷事撮要》(韓國圖書館學研究會, 南文閣, 1974.)

Abstract

A Study on the Classical Chinese Novel Huayingji花影集 Published in Chosun

Park Jae-Yeon

Huayingji花影集 is one of the classical Chinese novel written by Taofu 陶輔(1441-?). However the original text of this novel has been lost even in China. Recently this novel discovered in Library of Waseda University of Japan.

This novel introduced to Chosun by Yunkae尹溪, in 1546. After forty years, this novel published in Konyang昆陽 by his grandson in law, Yunkyunghee尹景禧. Moreover, epilogue of this novel written by famous writer Chaelip崔崑(1539-1612), who visited China several times as a diplomat.

Furthermore, one short story of this novel, Liufangsanyi-zhuan劉方三義傳 even translated into Korean in eighteen century.